

혈당관리 스마트하게... 가전·헬스케어업계, 기술경쟁 치열

삼성전자 비침습적 측정 상용화 연구
쿠쿠전자 곡물 당 저하 밥솥 판매
카카오헬스케어 '파스타' 앱 서비스

'저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가전기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행이 번진 건 MZ 세대 사이에서 마라탕, 탕후루 같은 '고자극' 음식이 유행한 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거나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제로 칼로리' 열풍에 이어 '저속노화' 식단까지 등장하면서 혈당 관리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혈당 관리를 돕는 다양한 가전기와 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혈당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CGM)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CGM 기기로 혈당 변화가 없거나 급격한 음식을 찾아 체중 감량에 도움



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 4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혈당 관리 솔루션 '파스타' 특별 팝업 스토어를 선보였다. /카카오헬스케어

받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채혈 없이 동전 만한 크기의 센서를 피부에 부착해 혈당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기기다. 기존 당뇨병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당뇨가 아닌 이들도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에서 AI 기반 혈당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파스타'를 지난 2월 출시했다.

파스타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으로 쉽

게 로그인해 CGM 센서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혈당 데이터를 제공받아 기록·관리할 수 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나타나면 안정 범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기에서 AI 기반 가이드도 제공한다. 음식을 앱 내 '푸드샷'으로 촬영하면 음식 종류, 영양소, 열량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식단을 관리할 수 있으며, 운동, 인슐린, 복약 등도 기록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신제품 출시 전 혈당 측정 기능을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를 함께 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



쿠쿠전자 '트윈프레스 마스터세프 저당 밥솥'. /쿠쿠전자

으나, 지난달 공개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에는 혈당 측정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당뇨병 치료의 난제로 꼽혀온 비침습적 혈당 측정 기술을 상용화하는 연구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피를 뽑지 않고도 레이저 빛을 이용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라만 분광법'을 적용했는데, 이 기술을 갤럭시 링, 워치 등 기기에 탑재해 각국의 까다로운 의료 규제를 통과하기엔 현실적 장벽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쿠쿠전자는 혈당 관리를 위해 쌀과 같은 곡물의 당 성분을 줄여주는 '저당 밥솥'을 판매하고 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저혈당 식단을 위해서는 당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고혈당 음식 섭취를 주의해야 하지만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쿠쿠전자가 특허 출원한 기술로 쌀 자체의 당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물로 쌀 속 전분을 씻어내는 당질 저감 기술력이 적용해 일반 백미의 당질을 최대 33.6% 줄이면서도 맛있는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당밥솥 밥을 섭취하면 일반 밥을 섭취할 때보다 식후 두 시간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2022년 4월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저당밥 섭취와 관련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당밥을 섭취했을 때 혈당 곡선이 일반밥을 섭취했을 때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이라크 초중량물 운송 프로젝트 성공

268종 110만t 규모 운송
"한국의 물류 국격 높일 것"

CJ대한통운이 정교한 하중 분산 기술을 기반으로 이라크 초중량물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프로젝트 물류 분야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

CJ대한통운은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이라크에서 총 무게 110만톤(t) 규모의 중량물들을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끝냈다고 5일 밝혔다. 프로젝트 물류는 사회기반시설 설치, 생산시설물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사 기간에 맞춰 운송하는 물류를 말한다.

CJ ICM은 이라크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석유정제시설, 건설자재 등 대규모 설비들의 물류를 수행했다. 이라크 움 카스르(Umm Qasr)항에 하역된 기자재들을 대상으로 항만보관 및 통관을 진행하고 항에서 약 95km 떨어진 바스라(Basra)



CJ대한통운은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이라크에서 총 무게 110만톤 규모의 중량물들을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라크 움 카스르 항에서 초중량물을 운송하고 있다. /CJ대한통운

h) 지역 인근의 공사현장까지 운송했다. 운송 목록에는 길이 최대 84m, 무게 50t에서 890t에 달하는 268개의 다양한 종류의 중량물들이 포함됐다.

이라크 프로젝트 물류 성공 배경에는 CJ ICM의 독보적인 '엔지니어링(Engineering)' 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이 기술은 화물, 기후, 지형 특성에 맞춰 투입해야 할 운송장비, 고박장치,

전문인력 등 세부 계획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물의 하중을 정교하게 분산시켜 차량 전복, 화물 파손 등의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도착 예정일을 준수함으로써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다.

이라크는 사막지형으로 인해 지반이 약한 곳과 비포장도로가 많고 4~6월에는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어 중량물 운

송 시 더욱 정교한 하중 분산이 필요하다. 이에 CJ ICM은 특수운송장비 SPMT(Self-Propelled Modular Trailer) 자체 추진 모듈 트레일러를 운송기간 동안 총 950대를 투입했다. 이 장비는 레고처럼 전면, 후면, 측면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어 화물의 체적에 따라 적재 공간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고 화물의 하중도 분산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화물의 체적을 고려해 운송에 걸림돌이 되는 교량, 신호등, 표지판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 전력선을 지하화하는 등 전문적인 토목 공사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사전에 현지 정부로부터 특별 운송허가를 받아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량물 운송 전문가, 경찰 호위대, 토목기술자 등 총 263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CJ대한통운 장영호 IFS본부장은 "초격차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K-방산, 원전, 프로젝트 물류 분야의 선도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물류 국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T
'SIGIR 2024' 우수 논문상

SK텔레콤(SKT)의 AI 기술 연구가 세계적 권위 학회서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SKT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보 검색 분야 세계적 권위 학회인 'SIGIR 2024'에서 자체 개발 추천 모델 알고리즘 연구가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SKT의 '원 모델(One Model) 버전 2.0'에 관한 연구다.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의 데이터가 시너지를 내 추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 논문은 해당 알고리즘의 참신성, 상용 배포 실증성, 방대한 실험을 통한 결과의 신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접수 논문 중 상위 0.6%의 논문에게만 수여되는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에이스침대
상반기 침대 트렌드 발표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에이스 웨딩 멤버스'를 통해 침대를 구매한 예비부부 고객 5976명을 대상으로 구매 트렌드를 분석, 5일 내놨다.

조사 결과 예비부부들의 침대 구매 경향을 살펴보면 프리미엄 매트리스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격대로 살펴보면 650만대 이상 제품 비중이 13.1%에서 17%로, 750만원대 이상 제품 비중이 4.5%에서 6.3%로, 850만~1000만원대 제품이 3.5%에서 4.2%로 각각 증가했다.

침대 프레임 역시 아늑한 휴식에 초점이 맞춰진 호텔식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김승호 기자

SIMPAC그룹, 브라질 합작법인 설립 추진... 폐로실리콘 생산

리마그룹 2000만달러 투자 협약 체결

국내 최대 합금철 제조기업 중 하나인 SIMPAC그룹이 브라질 굴지의 실리콘 합금 제조업체 리마그룹(RIMA Industrial S.A.)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SIMPAC그룹은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리마그룹과 저탄소 고순도 폐로실

리콘 공동생산을 위한 2000만 달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최진식 SIMPAC 회장은 중견련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SIMPAC은 합작법인 실브라코(SILBRAKOR)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50%를 확보하고 국내 시장에 매달 최소 2000톤의 저탄소 고순도 폐로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리마그룹은 브라질 실리콘 합금 생산·판매 분야의 선두 주자로, 1000만 달

러의 현물 투자를 통해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한다.

국내 최대 산업기계 제조사인 SIMPAC은 2019년 포스코엔텍의 폐로실리콘 분야를 인수하면서 합금철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현재 국내 유일의 고순도 폐로실리콘 제조업체로,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을 통해 최고 등급의 저탄소 고순도 폐로실리콘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최진식 SIMPAC그룹 회장(오른쪽)이 히카르도 비친틴(Mr. Ricardo A. Vicentin) 리마그룹 회장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